

사과·배 소매가격 하락 전환

배 10개에 4만1551원 8.4%·사과 11.9% 내리... 정부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집행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등 정책 효과로 사과와 배의 소매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름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4만 1551원으로 전 거래일인 15일(4만 5381원)보다 8.4% 내려졌다. 배 한 개에 4100원꼴이다.

소매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1년 전(2만734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2.0% 비싼 수준이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 가격 역시 전날 2만4148원으로 전 거래일(2만

7424원)보다 11.9%나 싸졌다. 사과 가격은 지난 7일 3만1877원으로 3만원을 넘어선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3만1056원으로 19.8% 하락한 이후 14일(2만7680원)에는 2만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1년 전(2만286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6% 상승했다.

단감과 딸기 등의 가격도 최근 소폭 내려갔다. 18일 단감(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2만1932원으로 전날보다는 0.1%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75.7%나 높다. 딸기(상품) 100g당 소매 가격은 1329원으로 전 거래일(1388원)보다 4.3% 싸으며 1년 전(1488원)보다도 10.7%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도매가격은 여전히 가격 강세

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kg의 도매가격은 전날 기준 9만1500원으로 전 거래일(9만900원)보다 0.7% 올랐다.

1년 전(4만1480원)과 비교하면 120.0%나 경증 뛰었다.

배(신고·상품) 15kg의 도매가격은 10만8000원으로 전 거래일(10만2000원)보다 0.6% 높고 1년 전(4만4215원)보다 130.2% 비쌌다. 소매 가격은 하락한 반면 도매가격은 소폭 더 오른 것이다. 사과와 배 가격은 햇과일이 출하되는 7~8월 여름철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매 가격이 하락한 배경에는 대규모 할인 지원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즉시 투입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사과 배 등의 수요 분산을 위해 체리 키위 망고스킨 등 수입 과일의 관세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다가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를 연구원으로 초청해 사과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과 나무 심고, 환경을 배워요'

LX공간정보연구원, 어린이집 원아 사과나무 심기 체험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이 어린이들과 함께 도심 속 녹색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19일,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를 연구원으로 초청해 사과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사과나무와 함께하는 녹색 미래 만들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랜디 어린이집' 원아와 LX공간정보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목일의 유래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사과나무를 짓기, 사과나무 심기, 이름표 부착 순서로 진행되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이날 심은 사과나무의 성장지진을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제공해 아이들이 사과나무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그림 그리기 등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심은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를 어린이집에 기증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급여·연금·가맹점 계좌 입금 사은품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와 연금·가맹점 대금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JB와 함께 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50만원, 연금 50만원, 가맹점 대금 100만원을 입금받아 해당 계좌의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50만원, 연금 50만원, 가맹점 대금 100만원을 입금받아 해당 계좌의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을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추첨을 통해 항목별 사은품을 증정하며,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된다.

단 이벤트 시행 전 급여·연금·가맹점 대금이 입금된 고객은 제외된다.

경품으로 급여 고객은 스타벅스 음료 쿠폰(총 600명), 연금 고객은 은누리상품권 1만원(총 300명), 가맹점 대금 입금 고객은 SK주유쿠폰 3만원(총 100명)을 각각 증정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철레는 봄을 맞아 전북은행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은행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진청, 봄철 기온 급하강 대비 인삼·시설채소 사전 관리 당부

인삼, 해가림망·방풍 울타리 활용해 발 내부로 냉기 유입 막아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인삼, 시설채소,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에 대비하여 재배시설 사전점검과 각별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인삼은 새싹이 나오는 시기에 저온 피해를 입으면 일 년 동안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다. 올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아 인삼 새싹이 나오는 시기가 5일 이상 빨라져, 4월에 예상치 못한 저온이 발생할 경우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급적 3월 중에 해가림망

을 빨리 내려 두둑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 새싹이 최대한 늦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저온이 예보되면 늦었다더라도 해가림망을 내려주고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냉기가 인삼밭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저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저온피해를 입은 뒤에는 햇빛공포이병, 점무늬병, 갈색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은 저온이 지속되면 성장(생장)이 멈추거나, 각종 생리장해의 발생으로 생육부진, 과실비대 불량, 품질 저하 등으로 피

해를 주기 때문에 생육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관리를 해야 한다.

밤에는 시설의 출입구 환기창 등으로 열이 손실되지 않도록 잘 닫아주고 외부의 차가운 냉기가 재배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가온장치를 이용하여 야간에 1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직포 커튼, 다겹 보온재를 이용하여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낮에는 시설 내부 온도가 30℃ 이상이 되면 고온으로 인하여 수경불량, 낙화, 낙과 등으로 수량이 저하되므로 축창과 천창을 열어주어 지나친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한다. /김옥기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2024 KESC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최신 기준을 공유하고 전기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1년 첫 세미나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공사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2024 KESC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 2부는 최신 전기안전 기술동향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김옥기기자

1부에서는 공사 정책관련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피뢰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검사제도 도입 등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육외 H형 주상설비의 시설기준 등 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최승연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기술세미나에서는 △LVDC(직류배전) 보호 및 안전기술,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배터리의 화재 안전, △나노복합성과 외부 LPS(선형 전원공급장치) 적용 등 전기산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김옥기기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분부는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금운용분부는 지난 2월 선정 계획 공고 후 제안서 심사, 기술심사과정 등을 거쳐 배양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가나다 순)을 최종 선정했다. /김옥기 기자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지닌 외부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첫 행보 '현충탑 참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의 첫 행보는 호국원으로 향했다. 임직원과 동행한 나 사장은 19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공사의 제3대 신입 사장으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새만금 사업의 발전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경균 사장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